

가정과 교육에서의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Ⅱ)  
—청소년관련 신문기사분석을 통해 본 청소년 문화—

배 영 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A Study on the Preventive Education for Adolescents'  
Problems in Home Economic Education (Ⅱ)

—Adolescents' Culture Analyzed with Newspaper Articles Concerning Adolescents—

Bae, Young-Mi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understand adolescents' culture, thereby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Preventive Education for Adolescents' Problems in Home Economic Education. 745 articles collected in computer communication service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using the SPSS/PC+ computer program.

The most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Concerning 'Adolescent's Problems', problems such as violence, homicide and robbery were treated with the greatest frequency.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older generations are highly inclined to understand adolescents' culture as a negative one, for example, 'delinquency' or 'immaturity'.

2) Although the area of 'Adolescents' Education' was treated most frequently reflecting the high educational concern in our society, the significant part of those articles were on wrongfu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much as 70.6% of the articles analyzed were on 'Education' and 'Problems'. Thereby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other areas such as health, activities, worries, values and harmful environments were treated respectively as only a 'subculture' or 'fragmentary culture'. The articles containing correlations and interactions among them and certain alternative

proposals were very rare.

3) The areas such as 'Worries and Counselling' and 'Health' were occupying only a small portion of the articles. The articles which were treating the practical worries and their resolutions were even rarer.

4) 'Values' of the adolescents tended to be viewed by the older generations very nega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older generations have the tendency to see the 'consumption culture' of the adolescents as a kind of 'counter culture' or 'subcultur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청소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박영상(1994)은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서 청소년이 갖는 의미 때문이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때 나라의 장래가 보장된다는 기대로 인해 청소년층에 대한 관심은 클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 이유는 '청소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힘'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청소년인 것을 볼 때 이들의 사회적 힘이 얼마나 큰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들의 사고형태, 생활방식, 행동양식 등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기존의 윤리나 규범, 가치관에서 이탈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커지게 마련이다.

요즘들어 청소년 문제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지광준, 1992). 이러한 원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개인적(생물학적·유전적·성격적) 요인(홍성열 외, 1992), 가정적 요인(박성

수, 1991; 원호택, 1991; Weiner, 1982),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요인(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 1988) 등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어느 한가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청소년의 이탈행위가 그만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을 규명하여 예방(교육)하고 치료하는데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현재 청소년 문화는 기성세대들이 청소년기에 형성했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데, 대표적으로 가치관, 언어, 놀이, 의상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 하면 크게 두가지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세련된 고급 문화와 동일시하는 협의의 것이며, 둘째는 전체 생활영역에서의 모든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이다. 후자의 맥락에서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감정 및 사고유형' 또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양식, 사고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 등을 통틀어서 이르는 것'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화'를 '청소년의 사고형태, 생활방식, 행동양식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면서

1) '문화'는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학자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계에 소개된 정의만도 160여개에 이른 다. E.B.Tylor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및 기타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했고, Kluckhohn과 Kelly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합리와 무관하든, 주어진 특정시간에 인간의 행동의 잠재적 지침으로 존재하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활의 설계'를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어느 학자는 세계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사회 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것, 역사적으로 전승된 것, 학습된 것이고 사회 성원의 행동 지침이며, 한 통합된 체제 또는 형태이고, 사회 구성원의 경험조직의 표준'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고학용(1997)

2) 도종수, 1992, 박경애 외, 1994, 재인용

3) 황정규, 1992, 박경애 외, 1994, 재인용

4) 김신일, 1992, 박경애 외, 1994, 재인용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기로 한다.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시대상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 '신문'이란 매체를 선정하였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는 '신문'이 기사보도를 통해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로 대중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 예방교육의 주체인 교사나 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가정과 교육에서의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I'에서는 현재 '학교' 및 '학교 밖(상당기관 등)'에서의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의 실태 및 '가정과 교육'에서의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을 살펴 본 후, 전화상담 사례에 나타난 청소년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방교육의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써, 청소년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의 변화를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위해, 청소년 관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청소년 문화'를 파악하고 '기성세대의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추해 봄으로써 '청소년 문화'를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문제의 유형은 어떠한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 2)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3) 청소년의 고민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상담측면)?
- 4) 청소년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은 어떠한가?
- 5) 청소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활(소비)패턴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요인은 어떠한가?

## 2. 용어 정의

1) 청소년 : '청소년'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한준상(1989)의 연구는 청소년을 연령에 따라

청소년 초기(12~14세), 중기(15~18세), 후기(19~21세)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C통신 내에서 제공된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수집방법의 특성상 청소년을 정의내려줄 수 없어, 검색어에 청소년의 유사어로 불릴 수 있는 10대와 신세대, 중고생을 함께 넣어 검색하였다. 즉 본 연구는 중고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이나 아동, 초등학교 등은 또다른 유목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어에서 제외하였다.

2) 청소년 문화 : 청소년의 사고형태, 생활방식, 행동양식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면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긍정적, 부정적 의미의 청소년 문화를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화를 5개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II. 문헌 고찰

### 1.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라는 말은 이제 그리 낯설지 않을 정도로 통용되고 있고 매스컴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실상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다수 청소년들이 속해 있으며,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 자아의식의 확립, 사회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기존 질서에 저항감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료집단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 동조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에게만 통용되는 가치, 행동양식, 규범들을 만들어 낸다. 이것을 흔히 '청소년 문화'라고 부르는데(박영상, 1994), 이는 기성세대가 청소년일때의 '청소년 문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 세대들의 청소년기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고, 형성될 여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문화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반부터이며,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이다(고학용, '97). 70년대 이전이라고 해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이나 그들만의 문화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50년대와 6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기성세대들의 기억속에는 '안된다', '가지말라', '하지말라' 식으로 통제만 당하던 사연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즉 주로 일탈을 방지하기위한 규제 위주로 일관됐을 뿐, 성인문화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구축할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 70년대 들어서구 문물의 본격적인 유입과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과 패턴이 선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의 청소년정책도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문화영역은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보는 시각은 각기 나름대로의 청소년관과 문화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김신일, 1992, 박경애 외, 1994, 재인용). 첫째는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보는 것으로 '어른의 시각'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을 모자라고 미숙하게만 생각하는 관점의 연장선에서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이고, 둘째는 '비행문화'로 보는 것으로 항상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 또는 성인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고 보며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셋째는 청소년 문화를 전체 문화가운데 한 부분을 이루는 '하위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지역, 성, 연령집단마다 그에 걸맞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넷째, '대항문화' 또는 '반문화'로 보는 시각으로 오늘의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상스러운 행동, 차림새들을 그들 세대의 문화로 인정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행동의 요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 자체가 갖고있는 특성 몇가지를 살펴보면(도종수,1993), 첫째는 '특수성'이다. 청소년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포괄성'으로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복장, 언어 등등의 것 이외에도 감추어진 태도, 가치관, 이념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체 문화와의 유기적 관련성'으로 청소년 문화와 성인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

을 하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양성'은 위에서 제시된 바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시각 중에서 하위문화의 개념으로 청소년 문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체의 부분인 청소년 문화 자체도 청소년의 계층,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학용(1997)은 청소년들의 행동양식, 사고방식, 옷차림새, 심미적 취향, 말투 등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고 속도가 빠르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 우선 조혜정 외(1991), 정환규(1991)(박경애 외, 1994, 재인용)는 '여가시간과 문화공간의 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자신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낼만한 시간과 공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이 요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에도 기인하는데, 현재의 학교교육은 매우 비인간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 1988). 또한 김신일(1992), 강명구(1992)(박경애 외, 1994,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의 상업주의'를 들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가 청소년 문화를 잠식하고 오직 상업적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만 청소년을 파악하고 있어 큰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정적 오락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신문, 잡지들을 발행하는 대중매체 산업과 소규모 영세 사업가들에 의한 불량만화, 비디오, 출판물, 오락실 등의 상업주의의 폐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함께 '퇴폐성'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성인사회의 퇴폐, 향락풍조의 만연, 황금만능주의의 영향에 따른 각종 퇴폐문화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상업이 늘어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충동성과 일탈성을 이용한 상업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다. 한편, 박경애 외(1994)는 '세대간 격차'를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는데,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와 부모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가족간의 대화가 부족해지면서 세대간의 격차가 심해진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청소년 문화와 성인문화는 깊은 괴리를 만들게 되고, 청소년 문화는 고립되어 정체, 변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현(1991)과 이덕주(1991)(박경애 외, 1994,재인용)는 '청소년간의 문화 불평등'을 전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 장애요인으로 보는데, 이는 청소년이라는 동일집단내에서도 남-녀간, 도시-농촌간, 계층간에 문화 불평등이 형성되어, 이러한 이질성이 결국 전체 사회의 이질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밖에 '무비판적 외래문화의 수용'을 들 수 있겠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음악, 패션, 비디오, 만화 등은 외래 저질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유선 및 위성방송이나 PC를 통한 음란물 외에도 노래방, 전화방, 단란주점 등의 퇴폐음식점까지 대중문화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배제된 채, 청소년 문화는 흔히 피상적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삶의 양식(문화)에 대항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반문화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향유하는 문화는 대체로 주류문화와 대립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같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문화가 정체되기 쉬운 기존문화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자극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청소년 문화가 잘 육성만 된다면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갈등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청소년들이 겪는 소외감이나 좌절감을 적절히 해소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토양이 일구어 졌는지가 세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분석대상은 1994~97년까지 4년간 중앙일보의 종합, 사회, 생활지면에 실린 청소년에 관한 기사이다. 자료는 PC통신의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IP에 접속하여 단어 검색법에 의해 수집하였다. 단

어는 청소년 외에 청소년의 유사어로 불릴 수 있는 10대와 신세대, 중고생을 함께 넣어 검색하였다. 검색된 기사 중 위의 단어가 내용에 잠시 언급되어 있을 뿐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기사를 제외시킨 745건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분석 유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황덕순 외(1994)의 분류기준과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I, II(김창대 외, 1994, 1995)를 참고로 하여 유목을 설정한 후, 분석과정에서 구분이 모호한 영역은 삭제하거나 통합하고, 기사의 수가 많은 영역은 세분화하여 조정하였다. 분류된 기사의 주제 및 그에 대한 하위 유목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문제

- ① 유해매체; 전자오락, 만화, 비디오·TV, 선정 잡지, 소설, 컴퓨터 음란물, 채팅 등
- ② 성; 성추행, 자위행위, 성폭력, 성문란, 성희롱 등
- ③ 약물; 본드, 마약, 음주, 흡연(대마초 포함)
- ④ 폭력·살인·강도; 이지메, 폭력집단, 가정폭력, 살인으로 이어진 폭력 등
- ⑤ 기타 비행; 가출, 절도, 학교공포증, 잦은 결석, 도벽, 폭주족, 불신, 자살, 음란전화, 조기 유학으로 인한 문제, 컴퓨터 해커 등

##### 2) 청소년 교육

- ① 가정교육; 부모교육(부모-자녀간의 대화 포함), 가정문화 등
  - ② 방학 중 캠프 및 프로그램 소개
  - ③ 학습관련; 학습전략, 학습법, 독서지도 등
  - ④ 성교육
  - ⑤ 교육관련 비디오 및 서적 소개
  - ⑥ 교육관련 정책과 법령제정, 학교교육(열린교육, 교육실태 등)
  - ⑦ 도덕성, 인성, 감성교육(EQ) 등의 가치관 및 의식교육
  - ⑧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 ⑨ 자원봉사, 청소년 선도, 사회적인 청소년 관련 행사, 캠페인
- ##### 3) 청소년 고민 및 상담
- ①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요구 및 기관소개
  - ② 고민 및 일반상담
  - 4) 청소년 건강

- ① 정신적 건강 관련 기사
- ② 신체적 건강 관련 기사
- 5) 청소년 생활·기타
  - ① 문화 생활; 청소년의 삶
  - ② 소비생활; 의, 주, 소비패턴 등
  - ③ 청소년 유해환경
  - ④ 청소년 생활전반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과 의식
  - ⑤ 기타 청소년의 생활; 근로청소년, 청소년가장, 농촌청소년, 입양청소년, 해외청소년 등

수집된 기사들은 기사제목과 내용에 의거하여 이상의 분석 유목에 따라 분류되었다. 기사 내용상 두 유목 이상에 해당되는 기사는 내용상 보다 강조

된 유목에 포함시켰다.

자료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분석에 사용된 청소년 관련 기사 수는 <표 1>과 같이 종합면이 85건(11.4%), 사회면이 579건(77.7건), 생활면이 81건(10.9%)이다. 사회면에서는 신문지면의 특성상 '청소년 문제'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른 두 지면에서는 '청소년 교육'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청소년 관련 기사 수

년 도	지 면	종 합	사 회	생 활	계 (%)
1994		36	122	20	178( 23.9)
1995		15	147	9	171( 23.0)
1996		26	171	17	214( 28.7)
1997		8	139	35	182( 24.4)
합 계		85 (11.4)	579 (77.7)	81 (10.9)	745(100.0)

주제별 청소년 관련 기사 수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745건의 기사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기사로 총 278건(37.3%)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문제'로 248건(33.3%)이었으며, 이어 '청소년 생활', '청소년 고민 및 상담', '청소년 건강'이 각각 175건(23.5%), 29건(3.9%), 15건(2.0%)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기사 수에서 연도별 추이는 볼 수 없었다.

##### 1. 청소년 문제

청소년기는 이미 아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상태에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유예상태에 있다.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인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소한 일상적인 변화에도 갈등을 겪게 되고 방황하며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소년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기사의 유목<표 3>은 '폭력·살인·강도'(122건,49.2%)로, 이는 5개 주제의 23개 하위 유목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16.4%),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폭력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실감나게 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그만큼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었다. 폭력은 소년범의 3대 비행(폭력, 절도, 교통위법)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김진희,1995)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 지 때, 폭력서클, 가정폭력 등의 기사 뿐 아니라, 살인이나 절도행각에 사용된 폭력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는데, 폭력의 양상이 날로 심각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 연구들을 분석한 구자순(1995)은 가족구조의 변화, 과다 경쟁과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제도, 그리고 향락, 쾌락적인 사회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미 언급된 청소년 문화를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과도 상통한다.

(표 2) 주제별 청소년 관련 기사 수

주제 및 연도	지면	총 합	사 회	생 활	계 (%)*	계 (%)**
1. 청소년 문제	94년	14	33	4	51 (20.6)	51 ( 6.9)
	95년	1	56	4	61 (24.6)	61 ( 8.2)
	96년	2	70	-	72 (29.0)	72 ( 9.7)
	97년	-	59	5	64 (25.8)	64 ( 8.6)
소 계		17	218	13	248(100.0)	248 (33.3)
2. 청소년 교육	94년	15	44	7	66 (23.7)	66 ( 8.9)
	95년	9	54	5	68 (24.5)	68 ( 9.1)
	96년	15	50	9	74 (26.6)	74 ( 9.9)
	97년	7	43	20	70 (25.2)	70 ( 9.4)
소 계		46	191	41	278(100.0)	278 (37.3)
3. 청소년 고민 및 상담	94년	-	2	2	4 (26.7)	4 ( 0.5)
	95년	-	1	1	2 (13.3)	2 ( 0.3)
	96년	-	3	1	4 (26.7)	4 ( 0.5)
	97년	-	-	5	5 (33.3)	5 ( 0.7)
소 - 계		-	6	9	15(100.0)	15 ( 2.0)
4. 청소년 건강	94년	1	5	3	9 (31.0)	9 ( 1.2)
	95년	-	4	-	4 (13.8)	4 ( 0.5)
	96년	-	9	-	9 (31.0)	9 ( 1.2)
	97년	-	6	1	7 (24.2)	7 ( 0.9)
소 계		1	24	4	29(100.0)	29 ( 3.9)
5. 청소년 생활/ 기타	94년	6	38	4	48 (27.4)	48 ( 6.5)
	95년	5	32	1	38 (21.7)	38 ( 5.1)
	96년	9	39	5	53 (30.3)	53 ( 7.1)
	97년	1	31	4	36 (20.6)	36 ( 4.8)
소 계		21	140	14	175(100.0)	175 (23.5)
합 계		85	579	81	745(100.0)	745(100.0)

\*주제 기사수에대한 년도별 백분율 (각 주제마다 연도별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기사수에대한 년도별 백분율 (전체에서 각 주제의 연도별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

〈표 3〉 주제별 유목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사 수

주제 및 연도		신문사	종 합	사 회	생 활	계 (%)*	계 (%)**
1. 청소년 문제	유 해 매 체	1	10	3	14 ( 5.6)	14 ( 1.9)	
	성 문 제	2	27	4	33 (13.3)	33 ( 4.4)	
	약 물, 음 주, 흡 연	3	28	2	33 (13.3)	33 ( 4.4)	
	폭 력, 살 인, 강 도	7	112	3	122 (49.2)	122 (16.4)	
	기타비행	4	41	1	46 (18.6)	46 ( 6.2)	
소 계		17	218	13	248 (100.0)	248 (33.3)	
2. 청소년 교육	가 정 교 육	-	4	17	21 ( 7.6)	21 ( 2.8)	
	방학중 캠프 및 프로그램	-	-	5	5 ( 1.8)	5 ( 0.7)	
	학 습 관 련	4	16	2	22 ( 7.9)	22 ( 2.9)	
	성 교 육	2	2	5	9 ( 3.2)	9 ( 1.2)	
	교육관련 비디오 및 서적 소개	-	-	2	2 ( 0.7)	2 ( 0.3)	
	정책, 법, 학교 교육	28	58	5	91 (32.7)	91 (12.2)	
	도덕성, 인성, 감성 교육	1	16	3	20 ( 7.2)	20 ( 2.7)	
	진로(지도) 및 직업 교육	-	17	2	19 ( 6.9)	19 ( 2.6)	
	자원봉사, 선도, 사회적행사, 캠페인	11	78	-	89 (32.0)	89 (11.9)	
소 계		46	191	41	278(100.0)	278 (37.3)	
3. 청소년 고민 /상담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	5	4	9 (60.2)	9 ( 1.2)	
	고 민/ 일 반 상 담	-	1	5	6 (40.8)	6 ( 0.8)	
소 계		-	6	9	15(100.0)	15 ( 2.0)	
4. 청소년 건강	정신적 건강 관련	-	1	2	3 (10.3)	26 (89.7)	
	신체적 건강 관련	1	23	2	3 ( 0.4)	26 ( 3.5)	
소 계		1	24	4	29(100.0)	29 ( 3.9)	
5. 청소년 생활 /기타	문화생활	9	15	7	31 (17.8)	31 ( 4.2)	
	가 치 관 / 의 식	5	42	1	48 (27.4)	48 ( 6.4)	
	유해환경	6	52	-	58 (33.1)	58 ( 7.8)	
	근로, 가정, 농촌, 입양, 해외 청소년의 삶	-	25	1	26 (14.8)	26 ( 3.5)	
	소 비 생 활	1	6	5	12 ( 6.9)	12 ( 1.6)	
소 계		21	140	14	175(100.0)	175 (23.5)	
합 계		85	579	81	745(100.0)	745(100.0)	

\*주제별 기사수에대한 각 유목의 백분율 (각 주제에서 유목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기사수에대한 각 유목의 백분율 (전체에서 유목이 차지하는 비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유목은 '기타 비행'에 관한 것이었는데(46건, 청소년 문제의 18.6%, 전체 유목의 6.2%), 가출, 강도행위, 자살, 학교공포증, 잦은 결석, 도벽, 폭주족, 음란전화, 조기유학으로 인한 문제, 컴퓨터 해커 등이 있었다. 특히 자살은 가출, 강도행위와 함께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김선경(1997)의 연구에서는 한국은 자살율이 세계 상위권(90-95년까지 모두 5위권 이내)으로, 10대 사인중 자살이 9위에 속하며, 자살자의 숫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성문제'는 '약물, 음주, 흡연문제'와 함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각 33건, 문제의 13.3%, 전체의 4.4%), 성과 관련된 분야의 기사로는 주로 성추행이나 자위행위, 성폭력, 성문란, 성희롱 등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성문제는 전화상담 사례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분석한 배영미(1998)의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문제영역으로, 금명자외(199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35%가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을 경험하여 '폭력'과 비슷한 비율로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Jehu 외, 1985)·대인관계적·행동적·인지적(Gil, 1988)·성적인 측면 등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이숙영 외, 1996))는 점에서 예방교육이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경자(이재창, 1996, 재인용)는 우리나라 성폭력의 원인을 사회 전반적인 '성문화'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남성다움과 여 다움을 강조하여 남녀에게 각각 다른 성규범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윤리 의식'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여성차별주의', 그리고 표면적으로 성에 관한 것을 금기시해야 한다는 '유교문화의 전통', '향락 퇴폐문화의 범람', '대중매체의 상업성'과 '음란물', '현대인의 스트레스', '기성세대의 도덕적 타락',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교육의 실패', '미온한 당국의 단속', '사회규범의 붕괴'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약물이나 음주, 흡연'문제는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과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김성이, 김재은, 유충규, 이재광, 최선화, 1989; 김경빈, 김성이, 김소야자, 박명운, 주왕기, 차경수, 최충욱, 1993; 김혜숙외, 1994재인용). 김혜숙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시절이 약물남용의 시작시기라고 밝히고 있어,

청소년 시기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유해매체'(14건, 청소년 문제의 5.6%)는 주로 (일본)만화, 비디오 및 TV, 선정잡지, 소설, 컴퓨터(특히 인터넷) 음란물이나 채팅, 전자오락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특히 곧 다가올 일본문화 개방과 더불어 '매스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걸리지 않는 각종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전달되는 불건전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이러한 것들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피해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상담기관에서는 PC통신을 이용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편지상담, 집단상담, 상담분야 유명인사들이 집필한 문제별 칼럼, 심리검사, 상담사례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높은 이용실태를 고려해볼때, 이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개발과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장치가 반드시 함께 병행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 교육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기사는 종합면, 사회면, 생활면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종합면과 사회면에서는 지면의 특성상 '교육정책이나 법, 학교교육'에 관한 기사가 많았고, 생활면에서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기사를 주로 다룬 '가정교육'이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사회면의 '자원봉사·청소년선도·사회적행사·캠페인'유목인데, 입시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자원봉사에 관한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선도에 관한 기사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과도한 학습열을 반영해주듯 '학습'이나 '진로'에 관한 기사가 각 22건, 19건이었는데, 이 기사들은 대부분 다양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소개나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주로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적 여건에 맞추어 입시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더불어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로, 이 중 현명한 진로선택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볼 때, 청소년

들에게 꼭 필요한 진로지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이재창(1996)은 우리나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로지도의 문제점을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위주의 진로지도,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실천방안으로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대한 노력, 직업세계의 탐색, 정의적 측면의 강조,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 형성, 의사결정 기술의 증진, 취업지도, 직업적응 기술의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20건(교육의 7.2%)으로 분석된 '인성·감성교육'을 포함한 '도덕성 교육'은 '도덕성'의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도덕성'이란 교육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닌, 문화적으로 전수되는 산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도덕성 의식조사'(이은화,1996)에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로 '정치 및 행정에 관련된 윤리'와 '인간관계 윤리'를 꼽았으며, 자신의 도덕행위 실천의식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93%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는 알지만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따라서 도덕성 교육은 지식이 아닌 습관으로 나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야 한다고 본다.

증가하는 성문제와 추세를 같이하여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였지만, '성교육' 관련 기사가 9건(교육의 3.2%) 있었다. 문인자 외(1997, 재인용)는 올바른 성교육을 '과학적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인간 완성을 지향하게 하는 인간교육인 동시에 인격교육'이라고 밝히고 있어, 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 문명에 이르러 비인간적인 성행위가 빈번해지는 것은 유아기때 부모로부터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교육은 유아기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정민자 외, 1995).

그밖에 '방학 중 캠프나 프로그램 소개', '교육관련 매체 소개' 등에 관한 기사가 각각 5건, 2건이었다.

### 3. 청소년 고민 및 상담

'청소년 고민 및 상담'기사는 '상담기관 및 상담 프로그램 소개 및 이에 대한 요구'가 9건,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내용'을 다룬 기사가 6건이었다. 상담기관이나 상담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인식에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이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사를 볼 때, 이제는 예방적 차원인 교육이나 치료적 차원인 상담 모두에 관심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사료된다.

'청소년들의 고민 및 일반상담'에 관한 내용으로는 공부(시험, 성적, 대학입시, 진로), 인생관, 외모, 친구관계, 성에 대한 상담사례 및 실태와 문제점 등이 나타나 있었다. 아직까지 전문상담원의 양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또래 상담'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현재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시리즈로 III 까지 개발, 실시된 바 있으며, 점차 널리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발달적 특성이 비슷한 단계인 또래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또래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볼 때(김용태외,1996) 또래 상담은 청소년의 문제예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청소년 건강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련된 기사는 '정신적인 면'보다는 '신체적인 면'의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 있었다. '신체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커져가는 체격에 반해 변함없는 학교 환경(책걸상)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체질이나 정신력 등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환경에서의 청소년 좌절감 연구(박아청 외,1996)에서도 보여주듯이, 입시위주 제도하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로인한 불안감,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면에 많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 5. 청소년 생활·기타

'청소년 생활 및 기타'주제에 나타난 기사도 지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종합면과 생활면에서는 '문화생활'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룬 반면, 사

회면에서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이나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에 대한 기사가 다수였다.

'유해환경'은 33.1%로 '청소년 생활'주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퇴폐 유흥업소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유해환경은 청소년 문제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여겨진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을 나타내는 기사도 48건(주제의 27.4%)있었는데, 이는 가족(특히 부모)이나 사회 및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민선호), 학교에 대한 불만, 타인의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무감각, 폭력 등 타인에게 가해 후 죄의식의 부재, 도덕성 실종, 가치관의 혼돈, 대중매체(스타)에 대한 광적인 정열, 단순사고(생각하기 싫어함) 등 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조망된 것들이었다. 성에 대한 의식변화라든지,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변화 등 '신세대, X세대'라는 대명사로 불리울 수 있는 특징들도 다소 나타나 있었는데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정의감이나 자선, 효심 등 긍정적인 기사도 일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 교육에서 도덕성이나 인성교육 등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종합면이나 생활면에서 가장 많은 기사수를 보이고 있는 '문화생활'유목에서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악이나 가수, 연예인, 스포츠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 놀이문화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31건, 17.8%).

그리고 사회면에서 많은 기사수를 보이는 '기타 청소년'(근로, 가장, 농촌, 입양, 외국 또는 해외거주이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26건 소개되고 있었다.

'소비생활'에서는 의, 식,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거나 그들사이에 유행하는 패션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밖에도 뼈빠나 핸드폰, 선물(향수나 시계, 반지...) 등의 청소년들의 소비패턴만을 알려주는 보도적 기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심하고 사회적 가치의식이 싹트는 시기이므로 모방적, 충동적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소비생활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의식을 심어 주고 합리적인 구매행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신순덕 외(1996)는 소비자 교육을 가정중심 소비자교육, 학교중심 소비자

교육, 사회중심소비자교육으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앙일보의 종합, 사회, 생활지면에 실린 청소년 관련 기사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대 '청소년 문화'를 5가지 주제로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의 변화를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교육자인 기성세대가 그들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청소년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기사의 유목은 '폭력·살인·강도'로, 이는 다섯개 주제의 23개 하위 유목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유목은 '기타 비행'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살은 가출, 강도행위와 함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 '약물, 음주, 흡연', '유해매체'에 관한 문제 순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는 청소년 문화를 '비행 문화'나 '미숙한 문화', 즉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해매체'의 경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대부분이 기성세대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목소리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 대책 및 제안점에 관련된 기사보다는 주로 보도 중심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반영해 주듯 다섯 유목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사가 보도되어 있었고, 또한 종합면·사회면·생활면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 있었다. 지면별로 보면, 종합면과 사회면에서 공통적으로 기사수가 많은 주제는 '교육정책이나 법, 학교교육'에 관한 기사였고, 사회면에서는 '자원봉사·청소년 선도'에 관련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생활면에서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기사를 주로 다룬 '가정교육'관련 기사가 대다수였다. 하위 주제별로 보면, '교육정책·학교교육'과 '자원봉사·청소년 선도'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고, '학습', '도덕성·인성·감성교육', '성교육' 등의 기사 순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전체 기사 중 70.6%가 '청소년 교육 및 문제'에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성세대들은 그 밖의 청소년 건강이나 생활, 고민, 가치관 및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인에 대해서는 각각을 '하위 문화', '단편적인 문화'로 이해하고 있을 뿐, 이것들의 연관성이나 상호영향력 등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고민 및 상담' 유목은 다섯 개의 하위 유목 중 가장 적은 빈도수를 나타낸 영역으로, '상담 기관·프로그램 소개 및 이에 대한 요구'와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내용으로 구성한 기사들이 소수 있을 뿐이어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고민거리나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사를 볼 때, 이례는 예방적 차원인 교육이나 치료적 차원인 상담에 관심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사료된다.

4) '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기사 또한 '청소년 고민 및 상담' 영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정신적'인 면 보다는 체격의 변화와 관련된 '신체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기사화 되어 있음을 볼 때,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다소 간과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 '청소년 생활 및 기타'주제에 나타난 기사도 지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종합면과 생활면에서는 '문화생활'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룬 반면, 사회면에서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유해 환경'이나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에 대한 기사가 다수였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관련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고, '생활(소비)패턴'에 대해서는 대항문화, 반문화, 하위문화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요인은 유해환경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는데, 단순 보도 중심으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부터 몇가지 제언을 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1994~97년까지 4년간의 근래 청소년 문화들 5가지 주제로 살펴보았다. 보다 심층적으로 청소년 문화를 분석하고, 이를 시대(상황)별로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문제'만을 주제로 심층 연구하려 한다면, 여러 신문의 사회면 기사만을 수집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신문자체가 기사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교육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매체로 한 학습법'(-가정과 교육의 성격 중 '응용과학'과 부합됨-)에 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기사는 대부분이 방안제시를 담은 지도적 기사보다는 실태 보고나 현상 기술에 그치고 있는 보도적 기사가 많았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내용 조정 및 성격에 변화를 주어, 생활에 적용되어 체계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 기사, 현대가정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사가 보다 요청된다.

넷째, 청소년 '문제', '교육', '고민·상담', '건강', '생활', 이 다섯가지 주제는 모두 '청소년 문화'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 주제가 다른 각각의 주제들에게 원인 및 결과로 작용하여 악순환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을 하기위해 청소년 문화의 어느 단편적인 면만이 아닌 모든 면을 포괄해서 이해해야 하며, 동시에 통합하여 다루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의무교육인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능동적인 문화생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개선'과 함께 '교과교육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입시를 위한 학습이 아닌, 학습 자체에서 또는 여가활동이나 놀이에서 삶의 목적과 보람,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섯째, 효율적인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관한 '내용물' 자체를 스스로 비판적 시각을 통해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가정과 교육의 성격 중 '비판과학'과 부합됨-)이 반드시 요구되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일곱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당국,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성세대가 청소년 일때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고 형성될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레 대두되고 있는 '청

소년 문화'를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고 이를 위해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작업일 것이다. 더욱이 문화란 것 자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그만큼 변화시켜야 할 분야들이 많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학용(1997), 청소년 언어문화의 실상화 대응방안,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17, 청소년대화의광장, 67-83.
- 구본용 외(1994),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10-12
- 구본용 외(1996), PC통신을 통한 청소년 정서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대화의광장
- 구자순(1995), 대형사고와 청소년,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4, 청소년대화의광장, 69-79.
- 구자욱 외(1997), 중등학교 성교육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31-142.
- 금명자 외(1996), 청소년 도덕성증진 프로그램 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금명자 외(1996), 청소년과 미래의식: 우리 청소년의 미래의식 조사발표, 제15회 청소년문제토론회, 청소년대화의광장, 57-58.
- 금명자 외(1996),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피해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병석(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청소년 상담 문제연구보고서 15, 청소년대화의광장, 7-22
- 김선경(1997), 자살의 원인과 대책: 한국의 자살통계 및 사례, 국제전화상담기관 세미나 자료, 34-43.
- 김용태 외(1996), 청소년또래상담훈련 프로그램3, 청소년대화의광장 pp. 17~20
- 김정옥(1993), 학교 성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5(1), 121-122.
- 김진희 외(1995), 비행청소년 상담지원정책, 청소년대화의광장, 18-24.
- 김창대 외(1994),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 I, 청소년대화의광장, 56-186.
- 김창대 외(1995),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 II, 청소년대화의광장, 193-209.
- 김혜숙 외(1994),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상담, 청소년대화의광장, 9-10
- 도종수(1993), 청소년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64-79.
- 문인자 외(1997),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145-159.
- 박경애 외(1994), 청소년의 문화풍속도, 청소년상담 문제연구보고서 7, 청소년대화의광장, 7-38.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아청(1996), 현대사회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제12회 특수상담사례연구발표회, 청소년대화의광장, 7-19.
- 박영상(1994), 청소년과 방송,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7, 청소년대화의광장, 50-54.
- 배영미(1998), 가정과 교육에서의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123-136.
-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1988),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 고찰, 연구보고서 19집.
- 신순덕 외(1997), 농촌지역 중학생의 학용품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163-167.
- 오익수 외(1996), 청소년 상담체제발전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형사정책연구원
- 이숙영 외(1996),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피해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은화(1996), 청소년 도덕성증진 프로그램 연구: 국내 도덕성 프로그램의 소개 및 평가,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재창(1996), 청소년을 위한 진로결정: 교육개혁안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지도, 청소년대화의광장, 75-122.
- 이재창(1996), 청소년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피해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청소년대화의광장.
- 장대운(1996), 청소년상담원 양성의 문제점 및 대

- 책, 청소년상담 발전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대화의광장, 61-96.
- 정민자 외(1995), 유아기 가족 성교육 실시 정도, 한국영유아보육학 6, 57-83.
- 지광준(1992) 청소년 범죄와 비행 -조기예측법을 중심으로-, 삼신각.
- 한준상(1989),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새대출판부.
- 함종한(1996), 청소년과 미래의식: 청소년과 미래의식, 제15회 청소년문제토론평장자료, 청소년대화의광장, 5-24.
- 허무열(1983), 중학교 상담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열 외 역, Lawrence Taylor 저(1992), 범죄행동은 유전적인가?, 성원사.
- 홍성운 외(1977), 학교 카운슬링 개선을 위한 제언 발달 -모형적 접근-, 교육학연구, 15(2), 123-127.
- 황덕순 외(1994), 동아·조선일보의 가정생활관련 지면에 실린 기사 내용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89-199.
- Jehu,D., Klassen,C., & Gazan, M.(1986). Cognitive restructuring of distorted beliefs associated with children sexual abuse, *J. of Social Work and Human Sexuality* 4, 49-69.
- Gil, E.(1988). *Treatment of adult supervisors of childhood abuse*, Launch Press, Walnut Creek, CA.
- Weiner, L. B.(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Y.:John Wiley & Sons.